

# 국산차 AS 이래서야... 수입차보다 부품 수급 더 걸려

### 입고 당일 수리 완료, 렉서스 93%로 2년째 1위 토종 브랜드 중에선 KGM이 85%, 5위로 선두 문제 발생 때만 국산차가 대기 4일 빨라 9일

75.7%였다. 당일 정비 완료 고객을 제외한 평균 수리 기간은 7.2일이었다. 국산차 평균은 6.5일이고 수입차 평균은 7.5일로 당일 정비가 안 될 경우 국산차가 수리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평균 수리 기간이 가장 짧은 브랜드는 한국GM(4.3일)이었고 르노코리아(4.9일)와 랜드로버(5.0일)가 뒤를 이었다. 포르쉐와 KG모빌리티가 각각 5.1일과 5.8일로 4.5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 3개 브랜드 중에서는 기아가 6.7일로 8위를 기록해 유일하게 평균 수리 기간보다 짧았다.

수리 과정에서 부품 수급 문제를 겪은 응답자는 전체의 18.8%였다. 부품 수급 문제 발생 10% 이하 기업으로는 렉서스(6.6%)와 도요타(8.7%)로 특히 렉서스는

4년 연속 6~7%대를 유지하며 확실한 1위 자리를 지켰다.

국산차(21.3%)가 수입차(18.3%)보다 부품 수급 문제가 평균적으로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중 부품 수급 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한 KG 모빌리티(17.6%)는 전체 브랜드로 따지면 7%에 위치했다.

문제 발생 시 부품 대기 기간은 국산차(9일)가 수입차(13.1일)보다 짧았다. KG모빌리티가 6.5일로 가장 짧았고 GM코리아가 7.0일로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각각 10.0일과 10.4일로 4위와 5위에 올랐다. 수입차 브랜드 중 유일하게 부품 대기 시간 상위 5위권에 든 기업은 8.4일이 걸린 테슬라였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 컨슈머인사이트, AS 만족도 조사

소비자들의 자동차 정비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부품 수급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제 발생 시 부품 대기 시간은 국산차가 더 짧았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 컨슈머인사이트는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연례 자동차 기획 조사'에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까지 지역 정비 사업소에서 애프터서비스

스(AS)를 받은 소비자 3만1474명에게 제공받은 서비스 경험을 묻고 시간과 비용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먼저 입고 당일 정비가 끝난 비율은 렉서스가 93.4%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렉서스 외에 90%를 넘긴 브랜드는 혼다(91.3%)와 도요타(91.0%) 등이 있었다. 국내 기업 중에는 KG 모빌리티가 85.8%로 전체 5위에 올랐다. 당일 입고 정비 비율 평균은 81%, 국산차 평균은

# 한은 “기준금리 25bp 내리면 2년 지나 집값 56% 상승”

### 소비자비합리적 기대가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약화 금리 인하가 물가보다 대출 여력 ↑... 일관된 정책 추진 중요

‘수도권 부동산 불패론’을 막기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진운·이정혁 한국은행 연구원은 11일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동태확률일반균형(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에서 미래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비합리적 기대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 심리지수(CSI) 지

료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이 주택 가격에 대해 추론하는 기대 형성 방식을 확인한 결과, 국내 주택시장의 경제주체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결국 다시 오른다는 ‘진단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하락기에도 부동산이 결국 상승했던 경험이나 최근 뉴스·주변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떠올려 판단한 결과다.

반면 기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추론하는

데 사용했던 모델인 합리적 기대 모델과의 연관성은 부족했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분석하기 위한 진단적 모델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진단적 기대’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리 인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 대출 여력을 확대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연구원은 “진단적 기대를 가정한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25bp 인하 이후 2년이 지나면 주택가격은 56% 정도 상승한 반면 국내총생산(GDP)·투자·소

비는 8~10% 정도 낮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다른 정책들도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함에도 기준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한국은행은 7, 8, 10월 연속 세 차례 금리 동결 결정을 하며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주 기자slee@skyedaily.com

# CJ 대한통운 오픈소스 국제 표준 인증

## 국내 물류 업계 최초 ISO/IEC 5230:2020 획득

CJ대한통운은 ‘오픈체인 프로젝트’가 주관하는 국제 표준 ‘ISO/IEC 5230:2020’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리눅스 재단의 주도로 시작된 활동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체계와 활용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 ‘ISO/IEC 5230:2020’ 인증을 지원한다.

CJ 대한통운은 “이번 성과는 국내 물류기업 가운데 첫 사례로 CJ대한통운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오픈소스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스 코드다.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투명하게 공개된 만큼 보안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라이선스 규정도 따른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분쟁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물류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물류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9월부터 로봇전문기업 로보티즈와 협력해 ‘피지컬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군포 풀필먼트센터에 배치하고 상품 포장 공정의 완충재 보충 작업에 투입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 중이다.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하드웨어의 통합 운영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기술 내재화가 핵심이다.

김정희 CJ대한통운 TES 물류기술 연구소장은 “이번 인증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오픈소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당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오픈소스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이어나가 물류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 하나카드, 지드래곤 컬래버 카드 3종 출시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한 한정판 카드가 제작됐다.

하나카드가 하나금융그룹 모델인 지드래곤과 협업한 한정판 카드를 1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신용카드 2종 ‘셧탑 바이 제이드’(연회비 100만 원), ‘바이 제이드’(연회비 15만 원)와 체크카드 ‘체크 바이

하나 트래블로그’로 구성됐다.

이 카드는 1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판매한다.

카드 콘셉트는 ‘하나’를 주제로 ‘하나되어 빛나는 시작’,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하나되어 성장하는 여정’이다. 카드별 전용 패키지와 혜택도 마련됐다.

이선주 기자slee@skyedaily.com



왼쪽부터 'Centum by JADE'(연회비 100만 원), 'by JADE'(연회비 15만 원)와 체크카드 'Check by HANA Travelgo'. 하나카드

박재혁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벌콘텐츠

##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씨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